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pISSN 1229-4292 / eISSN 2508-3619
J Korean Obstet Gynecol. VOL.30 NO.4 : 114-134 (2017)
https://doi.org/10.15204/jkobgy.2017.30.4.114

한의치료를 받은 산모의 산후 6주간 증상에 대한 전향적 관찰 연구

[1]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학교실, [2]한국한의학연구원 미병연구단
김평화[1], 김안나[2], 장현철[2], 이은희[1]

ABSTRACT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on Symptoms of the Postpartum Women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during Six Weeks after Childbirth

Pyung-Wha Kim[1], An-Na Kim[2], Hyun-Chul Jang[2], Eun-Hee Lee[1]
[1]Dept. of Obstetrics & Gyne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2]Mibyeong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women's postpartum symptoms, including their weights, edema index and quality of life (QOL) over the first six weeks after childbirth.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31 postpartum women treated in the Dept. of Obstetrics & Gynecology, at Woo-Suk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from May 20th to August 5th, 2016. In the first 2 weeks of the postpartum period, the main data collection method was to interview each patient and write down all of their complaints, and additionally referring to each participant's PHR (Personal Health Records). At the 3rd, 4th, 5th and 6th week, the researcher interviewed participants by phone once a week. The participants' weight, edema index (ECW/TBW) and the quality of life (by EQ-VAS) were measured at 1st and 2nd week after childbirth. And, EQ-VAS was assessed once more at the 6th week after childbirth. As a last step, the participants responded to a survey on satisfaction regarding their postpartum care with Korean Medicine.

Results:
1. In the 1st one week after childbirth, edema was the most frequent complaint. It was about joint pain of the upper limbs in the 2nd and 3rd weeks, sweating in the 4th week, and joint pain of the upper limbs in the 5th and the 6th weeks.
2. In the 1st two weeks of the postpartum period, the weight of the participants decreased from 66.33±9.30 kg to 62.60±8.92 kg ($p<0.001$) and the edema index ECW/TBW decreased from 0.399±0.010 to 0.385±0.004 ($p<0.001$). The EQ-VAS significantly improved from 61.77±17.72 to 73.51±14.67 ($p<0.001$). In the last 4-weeks of the postpartum period, the EQ-VAS decreased from 74.30±14.25 to 73.63±13.35, but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749$).
3. Regarding the satisfaction with postpartum care with Korean Medicine, 60% of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at it was 'Excellent' and 40% said it was 'Good'.

Conclusion: Over the entire postpartum period, the most frequent complaints were about musculoskeletal symptoms. Postpartum care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improves various postpartum symptoms and the quality of life for postpartum women.

Key Words: Postpartum, Interview, Korean Medicine, Personal Health Records, EQ-VAS

Corresponding author(Eun-Hee Lee) : Dept. of Obstetrics & Gynecology, Woo-Suk University Hospital of Korean Medicine, Eoeun-ro 46, Jeonju-si, Jeonbuk, Korea
Tel : 063-220-8606 Fax : 063-227-6234 E-mail : lovedmsl@hanmail.net

Ⅰ. 서 론

산욕기는 산모의 신체 회복과 모성으로의 역할 변화 등 신체와 심리의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분만 후 첫 6주를 말한다[1,2]. ≪金匱要略≫[3]에서는 산후 7일에서 1개월 이내를 新產後라 하여 이 시기의 관리를 강조하였으며, 한국 사회에서는 초기 산욕 기간을 산모가 타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관리를 받는 중요한 기간으로 여긴다[4].

오늘날 모자건강이 곧 사회건강의 척도라는 인식과 함께 산후관리가 휴식이 아닌 치료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5,6]. 특히 30세 이상 고령 출산의 증가, 고위험 임산부의 증가, 불임시술로 인한 다태임신 증가, 제왕절개 분만의 증가 등으로 산후의 의료적 개입 및 관리의 전문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던 산후후유증을 질병으로 인식하여 치료하고 있다[6].

2011년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 103곳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의료인 연계율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 연계는 63곳(61.2%), 산부인과 의사 연계 35곳(34%)로 조사되었으며, 한의사의 역할은 한약처방, 침구치료, 산모교육 등 이었다[5]. 또한 2013년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인 고운맘 카드(현 국민행복카드)가 한방의료기관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한국표준진료사인분류코드(KCD) 산후풍(U32.7) 치료를 출산 예정일로 60일까지 지원카드를 사용하여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체계적인 한의약적 산후 진료를 위해서는 산후 증상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며, 증상을 계통적으로 보고 증상의 경과를 파악하는 것은 산후 진료 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7,8]. 이러한 산후 증상에 관한 연구로는 산후 5개월 동안의 발생 증상에 대한 후향적 조사연구[7], 한의치료를 받은 산욕 초기 2주간의 제반증상에 대한 후향적 차트조사 연구[8]가 대표적이며, 산후 우울과 피로수준[9], 열감・한출・갈증[10], 산후 체중정체[11] 등 특정 증상의 변화에 대한 산욕 초기 한의치료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산후 2주까지의 증상, 특정 증상의 변화만을 관찰하였거나 후향적인 차트 리뷰, 단발적 설문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7,8,12].

이에, 본 연구는 한의치료를 받은 산모의 산후 6주에 걸친 제반 증상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를 함으로써, 산욕기 전 기간의 산후 증상 수집, 경과관찰, 변화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분만 후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외래에서 한의치료를 받은 31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6주간의 전향적 증상 관찰연구를 시행하여, 증상을 수집하고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산후 여성의 삶의 질 변화를 조사 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IRB 승인 번호 WSOH IRB 1606-07). 본 관찰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충분히 대상자에게 설명한 후,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자에 한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분만 후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외래에서 한의치료를 받은 산모 중,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이며 관찰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35명에서 중도탈락자 4명을 제외한 총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선정 기준

(1) 산후 7일 이내의 만 25세~40세 여성으로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외래에서 한의치료를 받는 자

(2) 재태기간 37~42주에 단태분만, 산과적 합병증이 없는 산모

(3)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자

(4) 본 관찰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자

2) 배제 기준

(1)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이 7일 미만인 자

(2) 신경 또는 정신학적으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환(정신분열증, 간질,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거식증 및 이상식욕항진 등)을 앓고 있는 자

(3) 연구 담당자의 소견 상, 연구의 준수사항을 따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중도 탈락자

본 연구의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초기 서면 동의한 최초 지원자 35명 중 중도포기자 2명, 나이 만 25세 미만인 자 1명,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자 1명을 제외한 31명이 관찰 연구를 완료하였다. 상기 중도탈락자 4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31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산후 증상 관찰과 함께 산모의 체중, 부종지수, 삶의 질 및 한의 치료 만족도 조사도 시행하였다(Table 1).

Table 1. The Schedule for Interviewing a Patient, Measurement (Weight, Edema Index,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Survey and Participants' PHR Checking

	Period 1*		Period 2†				
	Week 1‡		Week 2§	Week 3	Week 4	Week 5	Week 6‖
Interviewing a patient	●		●	●	●	●	●
Measurement for ①-③							
① Weight	●		●				
② Edema index	●		●				
③ Quality of life	●		●				●
Satisfaction survey on Korean medicine treatment							●
Participants' PHR checking¶							

*Period 1 : During 2 weeks after childbirth
†Period 2 : From the 3rd week to the 6th week after childbirth
‡Week 1 : The day when each patient was enrolled into this study.
§Week 2 : The last day of 2nd week after childbirth (±2 days)
‖Week 6 : When each participation was completed=the last day of 6th week after childbirth (±2 days)
¶Participants' PHR checking : Participants constantly checked their own PHR by themselves.

1) 문진과 한의치료

산후 증상 관찰 및 기록은 한방부인과 전공의인 본 연구자가 문진을 하고, 문진 전·후에 산모 본인이 기록한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s, 이하 PHR)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PHR은 개인의 진료 및 건강정보와 개인이 스스로 기록한 일상 건강정보 등을 IT 기술을 이용해 통합 보관·관리 해주는 새로운 의료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13],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한 '한의 PH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산모가 외래에 오지 않는 날에도 본인의 증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Appendix 1).

문진과 PHR을 이용하여 초기 산욕기 2주간 외래를 방문한 대상자의 증상을 수집하고, 한의치료를 수행한 진료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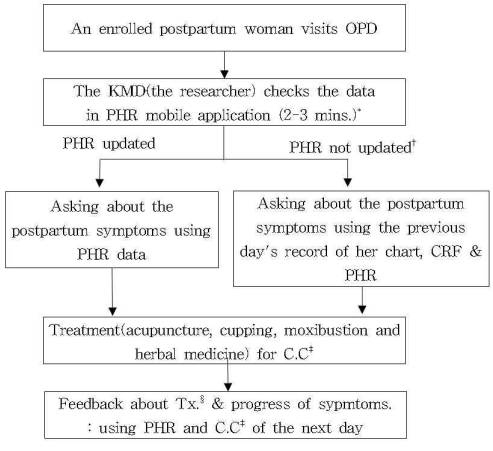


Fig. 1. A flow chart to collect data about postpartum symptoms.
* : When a participant visited OPD, a routine order existed, that was 'cupping Bladder Meridian 1 (and 2) for 7 mins → acupuncture treatment → moxibustion'. Mostly, the researcher checked the shared PHR data while a participant took cupping therapy.
† : When a participant didn't update PHR data before she visited OPD, the researcher asked about postpartum symptoms using the previous day's record of her chart and PHR.
‡C.C : Chief complaint
§Tx. : Treatment

(1) 문진 방법

초기 산욕기인 산후 2주 동안은 대상자가 연구에 서면 동의한 날부터 외래 치료실에 방문할 때마다 문진과 한의치료를 시행하였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후 3주차부터 6주차에는 일주일에 1회 산모에게 전화를 하여 증상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전화 연결된 산모에게 해당일과 그 주의 증상에 대해 문진하였고, 3회의 전화 통화 시도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자료 미수집으로 처리하였다. 이 기간 동안 외래를 방문한 산모에 대해서는 직접 문진으로 증상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임신·분만 관련 정보와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모두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Table 2). 문진 내용은 산후 제반 증상에 대한 고찰 연구인 엄 등[7]과 박[8]의 연구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계통의 증상을 중심하였다(Table 3). 산모가 기록한 PHR 항목도 문진의 체크리스트로써 활용하였다(Appendix 1).

Table 2. Questions Items

Category	Items
Information about pregnancy and delivery‡	▫ Date of childbirth ▫ Gestational period ▫ Ways of delivery (N/D* or C/S†) ▫ Newborn baby : sex, neonate weight ▫ Expected breast-feeding period ▫ Parity
Postpartum symptoms	▫ Perineal pain or C/S site pain, afterpain (兒枕痛), breast-feeding problems and breast condition ▫ Edema, fever ▫ Muscle pains and joint pains by physical parts ▫ All other symptoms that a participant complained about
Weight changes	▫ Pre-pregnancy, antepartum and postpartum weight of participants

*N/D : Normal vaginal delivery
†C/S : Cesarean delivery
‡ : Only the day when a participant was enrolled in this study.

Table 3. Classification of Symptoms[7,8)]

Classification	Symptoms
Neuropsychiatric system	Headache / dizziness / sleep disorder / depression
Circulatory system	Puerperal fever / chill / hidrosis / edema / coldness
Respiratory system	Common cold
Digestive symptoms	Inappetence / indigestion / constipation / diarrhea
Musculoskeletal symptoms	Neck pain / upper joint pain (shoulder, elbow, wrist, fingers) / LBP (including S-I joints, coccyodynia, etc.) / lower extremities pain / lower joint pain (knee, ankle, toe)
Urinary system	Urinary frequency / urinary incontinence / oliguria / pain when urination / overactive bladder
Genital system	Perineal pain / C/S site pain / afterpains / postpartum bleeding / breast-feeding problems
Other symptoms	Dermatopathy / haemorrhoids / fatigue

(2) 치료 내용

한약은 生化湯加味方을 기본방으로 투약하였다. 부종이 심한 경우 체질처방을 3~4일 정도 투여하였고, 產後身通이 있는 경우 羌活, 獨活, 葛根 등을, 자궁수축이 늦어지는 경우는 蒲黃, 五靈脂 등을, 변비가 심하면 麻子仁, 大黃, 肉蓯蓉 등을, 유즙과소인 경우 木通, 王不流行, 通草 등을, 발열이 있는 경우 柴胡, 黃芩 등을, 유방울혈이 있는 경우는 芷貝散을 가하는 등 증상에 따라 기본방을 운용하였다.

침치료는 三陰交(SP06), 太衝(LR03), 陰陵泉(SP09), 懸鍾(GB39), 足三里(ST36), 血海(SP10), 中極(CV03), 關元(CV04) 등의 경혈과 아시혈을 산후 환자의 변증

및 증상에 따라 선택해 시술하였다. 화침, 온침, 전침 등을 변증 및 증상에 따라 활용하였고, 1회용 호침(0.25×30 mm, stainless steel, 동방침구제작소, 한국)으로 평균 15분 유침하였다.

약침치료는 어혈성 산후복통 및 오로 부진에 中極(CV03), 關元(CV04) 등의 하복부 혈자리에 어혈약침 1 cc를 3~4부위 나누어 시술하거나, 肝腎虛弱으로 변증된 이완성 통증이 있는 아시혈 부위에 봉약침 등의 치료가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뜸 치료는 산후 어혈치료를 위해 關元(CV04)에 봉래구를 보편적으로 실시하였고, 소화장애나 사지 부종이 심한경우에는 中脘(CV12)에 왕뜸을 활용하였다.

부항 치료는 방광경 1~2선에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호소 증상에 따라, 어깨, 허리, 둔부 등 아시혈 위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물리치료는 ICT, Hotpack을 환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실시하였다.

그 외에 모유수유 자세 및 유방울혈에 대한 대처방법, 통증별 스트레칭 방법 및 자세 등을 연구자가 직접 교육하였다.

2) 체중과 부종지수 측정

산모 신체 변화의 객관적인 수치화를 위해 체중과 부종지수를 대상자의 서면 동의 당일과 산후 2주차의 마지막 날(±2일), 총 2회 측정하였다. 측정은 Biospace사의 체성분분석기(Body Composition Analyzer) Inbody 720을 이용하였다.

부종지수(Edema Index)는 ECW(Extra Cellular Water)/TBW(Total Body Water) 수치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체의 체액(Fluid) 중에서도 수분(Water)만을 분석한 세포외수분과 체수분의 비율 ECW/TBW가 더 정확한 체내 수분 상태를 나타낸다[14].

3) 삶의 질 평가

EQ-VAS(EuroQol Visual Analogue Scale)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 변화를 알아보았다. EQ-VAS는 최저의 건강상태를 0점, 최고의 건강상태를 100점으로 하는 온도계 모양의 20 cm 수직자 형태로, 전반적인 측면의 건강 수준을 눈금에 표시하도록 하는 평가도구이다[15](Appendix 2). EQ-VAS는 대상자가 본 연구에 서면 동의한 당일, 산후 2주차의 마지막 날(±2일), 산후 6주차의 마지막 날(±2일), 총 3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4) 한의치료 만족도 조사

산후 2주 간 외래에 방문해 받았던 한의치료가 현재(산후 6주차)의 몸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문을 통해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산모는 '한방치료를 병행한 산후관리가 현재 나의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보통',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의 5개 항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참여가 완료되는 출산 후 6주차 마지막 날(±2일), PHR mobile application에 접속한 산모에게 설문 화면이 나오도록 설정하고, 익명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3. 통계 분석 방법

산욕기 첫 2주 및 산후조리원 이용 후 4주(출산 후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의 각 ±2일)까지의 증상에 대한 문진 기록을 토대로, 대상자별로 산후 일수에 호소했던 증상들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호소증상은 상기한 계통별 증

상을 토대로 단순화하였다. 그 후, 산후 일수마다 호소된 증상의 N수를 알아보았다. 일수별 산후 증상의 정리와 증상의 N수 조사는 Polaris Office Excel((주)인프라앤비즈)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사의 SPSS Statistics 20을 이용하였다. 모든 연구결과는 $p<0.05$을 기준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 31명의 최저 연령은 만 25세, 최고 연령은 만 37세, 평균 연령은 31.74±3.41세였으며, 분만 방법은 자연 분만한 산모가 22명(70.96%), 제왕 절개를 한 산모가 9명(29.0%)이었다. 출산력은 초산부가 17명(54.8%)이었으며, 경산부가 14명(45.2%)이었다(Table 4).

2. 산후 증상의 변화

1) 계통별 증상의 빈도와 발생률

대상자 31명의 산후 증상을 문진을 통해 산후 6주간 조사한 결과, 계통별 증상의 총 발생빈도, 평균 발생빈도, 총 발생빈도의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Table 5).

산욕기 6주간 산후 증상의 총 발생빈도는 1104회, 이를 전체 산모 31명으로 나누었을 때 1인당 평균 발생빈도는 약 35.61회였다. 총 발생빈도의 비율은 근골격계 44.11%, 순환기계 21.65%, 생식기계 13.95%, 기타증상 7.34%, 신경정신계 4.98%, 소화기계 4.53%, 비뇨기계 2.72%, 호흡기계 0.91% 순으로 나타났다(Fig. 2).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Division	Number	Mean (±SD)	Percentage (%)
Age (years)	All the ages	31	31.74±3.41	100
	25≤age<30	9	27.33±1.05	29.03
	30≤age<35	14	32.27±1.18	45.16
	35≤age≤40	8	36.29±1.03	22.58
Types of delivery	Normal delivery	22		70.96
	Caesarean delivery	9		29.04
Parity	Primipara	17		54.84
	Multipara	14		45.16

Table 5. The Incidence, Its' Mean Value and Ratio of Various Postpartum Symptoms by Systematic Classification

Classified symptoms	No. of incidence	Mean of incidence†	Ratio of incidence‡ (%)
Neuropsychiatric system	55*	1.77*	4.98*
Headache	9	0.29	0.82
Dizziness	2	0.06	0.18
Sleep disorder	33	1.06	2.99
Depression	11	0.35	1.00
Circulatory system	239*	7.71*	21.65*
Puerperal fever	3	0.10	0.27

Chill	16	0.52	1.45
Hidrosis	58	1.87	5.25
Edema	146	4.71	13.22
Coldness	16	0.52	1.45
Respiratory system	10*	0.32*	0.91*
Common cold	10	0.32	0.91
Digestive symptoms	50*	1.61*	4.53*
Inappetence	1	0.03	0.09
Indigestion	7	0.23	0.63
Constipation	32	1.03	2.90
Diarrhea	10	0.32	0.91
Musculoskeletal symptoms	487*	15.71*	44.11*
Upper joint pain (shoulder, elbow, wrist, fingers)	157	5.06	14.22
Lower joint pain (knee, ankle, toe)	62	2.00	5.62
LBP (including S-I joints, coccyodynia, etc.)	130	4.19	11.78
Neck pain	125	4.03	11.32
Lower extremities pain	13	0.42	1.18
Urinary system	30*	0.97*	2.72*
Oliguria	7	0.23	0.63
Urinary incontinence	7	0.23	0.63
Pain when urination	13	0.42	1.18
Overactive bladder	1	0.03	0.09
Genital system	154*	4.97*	13.95*
Perineal Pain or C/S site pain	45	1.45	4.08
Afterpains	23	0.74	2.08
Postpartum bleeding	2	0.06	0.18
Breast-feeding problems	84	2.71	7.61
Other symptoms	81*	2.61*	7.34*
Dermatopathy	38	1.23	3.44
Haemorrhoids	13	0.42	1.18
Fatigue	30	0.97	2.72
Sum	1104	35.61	100

* : Total of all the values of subcategories below
† : Mean of incidence = no. of incidence/31
‡ : Ratio of incidence = (no. of incidence/110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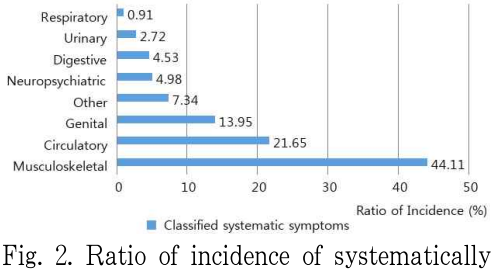


Fig. 2. Ratio of incidence of systematically -classified postpartum symptoms.

2) 출산 후 경과 시기에 따른 산후 증상의 변화

산욕기 전 기간에 걸쳐 고빈도(평균 발생빈도 1.0회 이상)로 산모가 호소하였던 증상 11가지는 상지관절통, 부종, 요통(골반통 포함), 경항부통, 유방증상, 하지관절통, 발한, 대변관련증상(변비, 설사, 치질 포함), 절개부위통, 피부질환, 수면

장애 순이었다. 상기 11가지 고빈도 호소 증상의 산후 경과 주차별 빈도 및 발생률을 살펴보았다.

(1) 1주차 고빈도 증상의 빈도와 발생률

출산 후 첫 1주간의 고빈도 호소 증상의 발생 빈도는 총 296회였으며, 이를 전체 산모 31명으로 나누었을 때, 대상의 평균 발생빈도는 약 9.55회였다. 그 중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부종으로 30.41%였고, 그 다음이 경항부통 13.85%, 요통(골반통 포함) 12.84%, 상지관절통 10.81%, 절개부위통 8.11%, 유방증상 7.43%, 대변관련증상 5.74%, 피부질환 4.39%, 발한과다가 2.36%, 하지관절통과 수면 장애가 각각 2.03% 순으로 호소 증상이 나타났다(Table 6).

Table 6. The Incidence, Its Mean Value and Ratio of Major Postpartum Symptoms in the 1st One Week after Childbirth

11 major postpartum symptoms	No. of incidence	Mean of incidence*	Ratio of incidence† (%)
Upper joint pain (shoulder, elbow, wrist, fingers)	32	1.03	10.81
Edema	90	2.90	30.41
LBP (including S-I joints, coccyodynia)	38	1.23	12.84
Neck pain	41	1.32	13.85
Lower joint pain (knee, ankle, toe)	6	0.19	2.03
Breast-feeding problems	22	0.71	7.43
Constipation or diarrhea	17	0.55	5.74
Dermatopathy	13	0.42	4.39
Hidrosis	7	0.23	2.36
Sleep disorder	6	0.19	2.03
Perineal pain or C/S site pain	24	2.77	8.11
Sum	296	9.55	100

* : Mean of incidence = no. of incidence/31
† : Ratio of incidence = (no. of incidence/296)×100

(2) 2주차 고빈도 증상의 빈도와 발생률

출산 후 2주차(출산 후 8일차~출산 후 14일차)의 고빈도 호소 증상의 발생 빈도는 총 308회, 이를 전체 산모 31명으로 나누었을 때, 증상의 평균 발생빈도는 약 9.81회로 나타났다. 그 중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상지관절통으로 18.83%였고, 그 다음이 요통(골반통 포함) 17.53%, 부종 17.21%, 경항부통 16.56%, 하지관절통 6.82%, 유방증상 6.49%, 수면장애 4.22%, 절개부위통 3.25% 피부질환과 발한과다가 각각 2.27%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The Incidence, Its Mean Value and Ratio of Major Postpartum Symptoms in the 2nd One Week after Childbirth

11 major postpartum symptoms	No. of incidence	Mean of incidence*	Ratio of incidence† (%)
Upper joint pain (shoulder, elbow, wrist, fingers)	58	1.87	18.83
Edema	53	1.71	17.21
LBP (including S-I joints, coccyodynia)	54	1.74	17.53
Neck pain	51	1.65	16.56
Lower joint pain (knee, ankle, toe)	21	0.68	6.82
Breast-feeding problems	20	0.65	6.49
Constipation or diarrhea	14	0.45	4.55
Dermatopathy	7	0.23	2.27
Hidrosis	7	0.23	2.27
Sleep disorder	13	0.42	4.22
Perineal pain or C/S site pain	10	0.32	3.25
Sum	308	9.81	100

* : Mean of incidence = no. of incidence/31
† : Ratio of incidence = (no. of incidence/308)×100

(3) 3주차 고빈도 증상의 발생률

상기 11가지 고빈도 호소 증상 중 산후 3주차(출산 후 21일±2일)에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상지관절통으로 22.54%였고, 그 다음이 발한과다 18.31%, 요통(골반통 포함) 12.68%, 경항부통 9.86%, 대변관련증상 8.45%, 하지관절통, 유방증상과 절개부위통이 각각 5.63%로 같았고, 부종과 피부질환이 각각 4.23%로 그 다음이었으며, 수면장애가 2.82%이었다.

(4) 4주차 고빈도 증상의 발생률

상기 11가지 고빈도 호소 증상 중 산후 4주차(출산 후 28일±2일)에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발한과다로 17.46%였고, 상지관절통과 유방증상이 같은 15.87%로 그 다음이었으며, 요통(골반통 포함)과 대변관련증상이 각각 9.52%, 경항부통과 하지관절통이 각각 7.94%, 수면 6.35%, 피부질환이 4.76%, 절개부위통이 3.17%, 부종이 1.59% 순으로 나타났다.

(5) 5주차 고빈도 증상의 발생률

상기 11가지 고빈도 호소 증상 중 산후 5주차(출산 후 35일±2일)에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상지관절통으로 22.58%였고, 하지관절통이 17.54%로 그 다음이었으며, 발한과다 14.52%, 요통(골반통 포함) 12.90%, 유방증상 11.29%, 대변관련증상 8.06%, 경항부통 6.45%, 피부질환 3.23%, 수면과 절개부위통이 각각 1.61%, 부종이 0.00% 순으로 나타났다.

(6) 6주차 고빈도 증상의 발생률

상기 11가지 고빈도 호소 증상 중 산후 6주차(출산 후 42일±2일)에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상지관절통으로 20.55%였고, 하지관절통이 16.44%로 그 다음이었으며, 요통(골반통 포함) 15.07%, 경항부통과 발한과다가 각각 12.33%, 유방증상, 대변관련증상 및 수면장애가 각각 6.85%, 절개부위통이 2.74%, 부종과 피부질환이 0.00% 순으로 나타났다.

3) 경과 주수별 상위 5가지 고빈도 증상

각 주수별로 총 발생빈도의 비율이 10% 이상인 증상들을 정리하여 상위 5가지 고빈도 증상을 비교해 보았다(Table 8).

Table 8. Major Postpartum Symptoms of Which the Ratio of Incidence Is More Than 10 % in Each Week

	1st week	2nd week	3rd week	4th week	5th week	6th week
1	Edema (30.41%)	Upper joint pain (18.73%)	Upper joint pain (22.54%)	Hidrosis (17.46%)	Upper joint pain (22.58%)	Upper joint pain (20.55%)
2	Neck pain (13.85%)	LBP (17.53%)	Hidrosis (18.31%)	Upper joint pain (15.87%) Hidrosis (15.87%)	Lower joint pain (17.54%)	Lower joint pain (16.44%)
3	LBP (12.84%)	Edema (17.21%)	LBP (12.68%)		Hidrosis (14.52%)	LBP (15.07%)
4	Upper joint pain (10.81%)	Neck pain (16.56%)			LBP (12.90%)	Neck pain (12.33%) Hidrosis (12.33%)
5					Breast-feeding problems (11.29%)	

3. 체중 및 부종지수의 변화

체중 및 부종지수를 측정한 시점인 대상자가 본 연구에 서면 동의한 당일과 산후 2주차의 마지막 날(±2일)은 각각 산후 4.57±1.93일, 산후 13.82±2.82일 이었다.

대상자들의 체중 변화는 평균 체중 66.33±9.30 kg에서 62.60±8.92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부종 지수인 ECW/TBW도 평균 0.399±0.010에서 0.385±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01$)(Table 9).

결측값은 본 연구에 서면 동의한 당일에 1명, 산후 2주차의 마지막 날(±2일)에는 9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후비교는 N수를 22명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9. Changes of Weight, Edema Index of Participants (n=22)

	Time 1†	Time 2‡	Correlation coefficient	Paired difference	t	df	p
	Mean±SD	Mean±SD	r (p)	Mean±SD			
Weight (kg)	66.33±9.30	62.60±8.92	0.986 (0.000)	3.72±1.57	11.152	21	0.000*
ECW/TBW	0.399±0.010	0.385±0.004	0.591 (0.004)	0.014±0.008	7.981	21	0.000*

* : $p<0.05$
† : The enrolled day
‡ : The last day of 2nd week after childbirth (±2 days)

4. 삶의 질 변화

삶의 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EQ-VAS는 산모가 본 연구에 서면 동의한 당일(EQ-VAS 1) 평균 61.77±17.72에서 산후 2주차의 마지막 날(±2일, EQ-VAS 2)에는 평균 73.51±14.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Table 10). 이 기간 동안 산모들이 받은 평균 외래 치료횟수는 8.03±2.19회였다.

산후 6주차의 삶의 질에 대한 VAS(EQ-VAS 3)는 평균 73.63±13.35로 평균값으로는 EQ-VAS 2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EQ-VAS 2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49)(Table 11). 산후 3주에서 6주까지 대부분의 산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의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라 함은 산모가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외래에 방문해 침, 뜸, 부항 및 한약 투약을 받을 경우인데, 3명의 산모가 각각 1회씩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결측값은 산후 6주차의 마지막 날(±2일)에 1명이 발생하였다.

Table 10. Changes of EQ-VAS of Participants Ⅰ (n=31)

	EQ-VAS1†	EQ-VAS2‡	Correlation coefficient	Paired difference	t	df	p
	Mean±SD	Mean±SD	r (p)	Mean±SD			
EQ-VAS	61.77±17.72	73.51±14.67	0.601 (0.000)	-11.74±14.73	-4.437	30	0.000*

* : p<0.05
† : The enrolled day
‡ : The last day of the 2nd week after childbirth (±2 days)

Table 11. Changes of EQ-VAS of Participants Ⅱ (n=30)

	EQ-VAS2†	EQ-VAS3‡	Correlation coefficient	Paired difference	t	df	p
	Mean±SD	Mean±SD	r(p)	Mean±SD			
EQ-VAS	74.30±14.25	73.63±13.36	0.666 (0.000)	0.667±11.31	0.323	29	0.000**

* : p<0.05
† : The last day of the 2nd week after childbirth (±2 days)
‡ : The last day of the study participation=the last day of 6th week after childbirth (±2 days)

5. 한의치료 만족도 조사 결과

한의치료를 병행한 산후관리가 현재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산모가 60%(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긍정적'이 40%(12명)로 그 다음이었다. '보통',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의 항목에 답한 산모는 없었다(Fig. 3).

Fig. 3. Satisfaction Evaluation for the postpartum care with 'Korean Medicine (acupuncture, moxibustion, herbal-medicine, etc.)'.

Ⅳ. 고 찰

산욕기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생식기 및 전신의 변화가 서서히 임신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시기로, 산후 첫 6주를 말한다[2]. 한의학에서 산후는 분만으로 인한 용력과다와 출혈로 인해 氣血이 虛弱하고, 津液이 부족하여, 邪氣에 쉽게 침범되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장부기능이 손상받기 쉽다고 보고 있다[2]. 이러한 산후의 특성상, 이 시기에 섭생을 소홀히 하면 산후 제반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7]. 특히, ≪金匱要略≫[3]에서는 新產後의 다양한 증상과 치료 방법을 제시하여 산후 일주일~한 달 이내의 기간에 산모가 조섭에 더욱 신경 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산후관리에 관하여 전통적 관습의 방법과 관찰 치료 위주의 양방, 전인적 관점의 조섭 치료 위주인 한방 각각의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16]. 실제적으로 장 등[5]의 연구에서 산후관리와 관련한 한의사의 구체적 역할이 한약처방, 침구 치료, 산모 교육 등으로 조사되었고, 박 등[17]은 임상과정에서 산모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함께 산후조리에 대한 산모의 인식과 문화적 적응방식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인적이고 합리적인 산후치료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체계적인 한의약적 산후 치료를 위한 기존 연구들은 산후 증상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각 증상에 대한 변화 요인과 치료법을 고찰하여 의료진이 산후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7-11]. 박[8]의 연구에서는 산후 2주 동안 한의치료를 받은 551명의 산욕 초기 증상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여, 산후 2주 내에 절개부위통, 요통, 부종, 완관절통, 견비통 등이 50% 이상의 고빈도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출산 후 1년 내에 1회 이상 외래치료를 받은 산모 104명에 대해 계통별 증상과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증상이 산후 가장 일반적인 증상임을 밝혔다[18]. 또한, 산후 체중정체[11]나 열감·한출·갈증[10] 등 산욕초기 특정 증상에 대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이 산후 2주까지의 증상 관찰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이 후향적인 차트 리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설문 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욕기 6주의 경과 관찰과 그 과정에서 의료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인 문진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7-9].

이에, 본 연구자는 산후 6주의 산욕기에 걸쳐 1주일 단위로 산모의 증상 변화를 전향적으로 관찰하였고, 본 연구가 한의약적 산후관리 대상의 산후 증상 자연경과와 변화 요인 파악, 산후 문진 기술 및 증상 체크리스트 개발에 있어서 기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산욕기 6주 동안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약 35.61회 증상을 호소하였다. 총 발생빈도의 비율의 상위 3가지는 근골격계 44.11%, 순환기계 21.65%, 생식기계 13.9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산욕 초기(산후 2주) 제반 증상을 후향적 차트 리뷰 한 연구[8]에서 고빈도 증상계통이 근골격계(39.3%), 생식기계(20.5%), 순환기계(14.7%) 순서로 나타난 것과 순서의 차이가 있다. 산후 5개월까지의 산후 제반 증상을 단회 추적 조사한 연구[7]에

서는 순환기계(23.7%), 생식기계(23%), 신경정신계(14.2%) 순서로 나온 것과도 차이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산욕기 전체 6주의 더 오랜 기간 증상을 관찰했기 때문에, 생식기계 증상들의 빈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외래에 방문한 산모가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골격계나 순환기계의 증상을 더 우선으로 호소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산욕기 6주 동안 가장 고빈도였던 것은 산후 증상을 수집한 다른 연구에서도 근골격계가 최고빈도로 호소된 것과 같은 결과이다[8,12]. 이러한 점은 고빈도 호소 증상 11가지가 상지관절통, 부종, 요통(골반통 포함), 경항부통, 유방증상, 하지관절통, 발한, 대변관련증상(변비, 설사, 치질 포함), 절개부위통, 피부질환, 수면장애 순서로 나온 것과도 연결해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적극적인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한방부인과 외래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외래 방문 시 실제적으로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증상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상기 11가지 고빈도 증상은 본 연구 결과에서 평균 발생빈도가 1.0회 이상인 것을 산후 증상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 쉽도록 선정하였을 뿐, 환자의 방문에 제한이 있는 외래 치료의 특성상 실제 임상에서는 산욕기 여성들이 제반 산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미병군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욕 기간에 나타나는 지체관절의 酸痲, 疼痛, 痲木, 重着 등을 産後身通이라고 하며, 산후관절통과 산후 痞證 역시 이에 포함된다[2]. 그 발생 기전은 통증 부위와 증상에 따라 다양하나, 분만으로 기혈이 약해지고, 분만 전부터 분비된 relaxin 등의 영향으로 전신관절의 건·인대에 영향을 받은 산모가 과도한 노동이나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수분저류 등으로 인해 말초신경이 압박·신장되어 초래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도 근골격계 증상 중 상지관절통이 산후 2주차, 3주차, 5주차와 6주차에 가장 호소가 많았는데, 이는 산후 관절통이 산욕기 전 기간에 걸쳐 산모들이 겪는 주된 대표 증상이며, 한의약적으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부분임을 의미한다. 다발되는 질환으로는 손목터널증후군, 손목건초염(드퀘르벵 병) 등이 있었고, 이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한의치료가 적극적으로 중재될 수 있다[19,20].

생리학적으로 분만 후 체중감소는 분만 시 신생아, 태반, 양수, 출혈 등으로 4.5~5.8 kg 정도 발생하고, 이후 1주 동안 발한과 배뇨로 평균 2.23~3.6 kg의 수분 배출이 발생한다[21]. 부종 지수(Edema Index)의 경우, 체액(Fluid) 중에서도 수분(Water)만을 분석한 세포외수분과 체수분의 비율 ECW(Extra Cellular Water)/TBW(Total Body Water)이 더 정확한 체내 수분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는데, ECW/TBW 수치가 0.40 이상인 경우를 부종이라고 하며, 0.390~0.399 범위는 부종 전단계이나, 임상적으로는 미약한 부종부터 함요 부종의 상태까지 보일 수 있다[14,22]. 본 연구에서 부종에 대한 호소는 1주차에 평균 발생빈도의 비율이 30.41%, 2주차에 17.21%, 3주차에 4.23%, 4주차에 1.59%, 5주차에 0.0%, 6주차에 0.0%의 변화를 보여, 출산 후 1주차부터 2주까지 부종이 두드러지게 호소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부종에 대한 호소가 3주차에는 대폭 감소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함께 측정한 체중 및 부종지수의 변화와 함께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산후 2주 간 체중 변화는 평균 체중 66.33±9.30 kg에서 62.60±8.92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또한, 대상자들은 산후 1주차에 ECW/TBW 0.399±0.010의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0.40과 거의 유사한 수치로 이 시기의 산모들이 실제 부종 지수 상으로도 부종상태에 있다가, 산후 2주차 마지막 날에는 평균 0.385±0.004, 즉 정상 범위로 체수분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p<0.001$).

≪東醫寶鑑≫[23]에서는 산후에 氣血이 허약한 상태에서 敗血이 五藏에 정체되고, 經絡을 따라 四肢를 붓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후 부종은 분만 직후 대다수의 산모가 느끼는 증상으로 가벼운 부종감에서부터 육안적으로 심한 부종과 함요 부종(pitting edema)까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며, 산모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산후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분만직후 산모의 삶의 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14]. 따라서, 산후 2주 이내의 산모의 부종 호소에 대해 체성분분석(BIA)과 Pitting edema sign 등을 적극 활용하여 경과관찰하고, 한의사로써 관심을 가지고 진료해 나갈 필요가 있다[24]. 또한, 본 연구의 결과처럼 산후 3주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부종감을 호소하며 실제로 함요부종을 보이는 산모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호전 기간을 벗어난 경우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방증상은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산욕기 6주 동안 산모들이 꾸준하게 호소한 증상 중의 하나였으며, 그 호소 증상의 범위도 유방울혈, 유두부 상처, 모유부족, 유선염 등으로 다양했다. 대상산모의 N수가 31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유방관련증상에 대해서는 산욕 초기와 후기를 구분하여 기간과 호소 증상을 연관 짓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모유수유가 모자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특장점이 있고, 이에 대한 산모들의 관심도 높으며, 이미 모유 및 산후 유방관련 증상에 대해 의료인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으므로, 산욕기 산모의 유방관련 호소증상에 대해서 한의사들의 한의약적 개입 영역을 확장시켜나갈 필요가 있다[25].

건강관련 삶의 질(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이하 HR-QOL)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선호도 기반 도구 중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EQ-VAS였다[15]. 옥 등의 연구[15]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에서 EQ-VAS를 살펴 본 결과 2010'-2011' 성인여성의 EQ-VAS가 72.5±18.2, 30대 여성은 75.9±14.0, 응답자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EQ-VAS가 62.6±(19.1), '보통'이 72.8±14.5, '좋음'이 81.3±12.7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1주차 EQ-VAS 평균값인 61.77±17.72이 상당히 낮은 삶의 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후 1주차 산모들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고, 출산 후 산모가 제반 질병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미병군임을 통계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후 6주차 EQ-VAS(EQ-VAS 3. 단, n=30)의 경우, 평균 73.63±13.35로 평균값으로는 EQ-VAS 2(n=30일 때 74.30±14.25)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749).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연구 종료시점에 실시한 한의치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볼 수 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60%가 한의치료를 병행한 산후관리가 현재의 몸 상태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40%도 '약간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방치료가 산욕 초기 2주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을 때, 그 영향이 산후 3주차에서 6주까지의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쳐 한의약적 치료가 산후 회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16]. 그러나, 이는 한의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 대한 같은 기간의 EQ-VAS 비교 등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후 6주에 걸쳐 근골격계 증상이 가장 고빈도로 호소되며, 산후 첫 2주 동안에는 부종이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지만, 산후 3주 이후에는 부종 지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대상 산모들의 삶의 질이 산후 2주 후에는 수치상으로 건강이 '보통'인 상태와 비슷해지며, 한의치료를 병행한 산후 관리는 산모의 몸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다만, 대상자수가 31명으로 적어 경과 시간과 각각의 호소 증상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사한 증상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증상 변화의 객관적 추이와 요인 분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더 많은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 기간을 확장하여 산욕기 전반을 관찰해 보거나 특정 증상의 변화 추이를 객관적 지표를 사용해 관찰하는 연구, 한의치료가 개입되지 않은 대조군과의 기간별 EQ-5D, EQ-VAS를 비교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저자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분만 후 우석대학교한방병원 한방 부인과 외래에서 한의치료를 받은 31명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 6주간의 증상 관찰연구를 전향적으로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후 6주 간 고빈도(평균 발생빈도 1.0회 이상)로 산모가 호소하였던 증상 11가지는 상지관절통, 부종, 요통(골반통 포함), 경항부통, 유방증상, 하지관절통, 발한, 대변관련증상(변비, 설사, 치질 포함), 절개부위통, 피부질환, 수면장애 순 이었다.
2. 출산 후 첫 1주간, 11가지 고빈도 증상 중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부종으로 발생빈도의 비율이 30.41%이었다. 2주차에 상지관절통이 18.83%로 가장 호소가 많았고, 그 다음이 요통(골반통 포함) 17.53%, 부종 17.21%, 경항부통 16.56% 순이었다.
3. 출산 후 3주차・4주차・5주차・6주차(±2일)에 산모가 가장 호소를 많이 했던 증상은 3주차에는 상지관절통으로 총 발생빈도의 비율 22.54%였고, 4주차에는 발한과다 17.46%, 5주차에는 상지관절통 22.58%, 6주차에는 상지관절통 20.55%였다.
4. 산후 2주 동안의 체중 변화는 평균 체중 66.33±9.30 kg에서 62.60±8.92 kg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부종지수 ECW/TBW도 평

균 0.399±0.010에서 0.385±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0.001$).

5. EQ-VAS는 산후 2주 동안 평균 61.77±17.72에서 평균 73.51±14.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01$) 증가하였다. 산후 6주차의 EQ-VAS는 평균 73.63±13.35로 산후 2주후에 측정한 EQ-VAS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49$).
6. 한의치료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60%(18명)의 산모가 '매우 긍정적'이라 하였고, 40%(12명)가 '약간 긍정적'이었으며, '보통',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산후 6주에 걸쳐 근골격계 증상이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며, 산후 첫 2주 동안에는 부종이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지만, 산후 3주 이후에는 부종 지수가 정상범위로 회복된다. 또한, 산욕 초기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한의치료는 산모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Received : Oct 27, 2017
□ Revised : Oct 29, 2017
□ Accepted : Nov 17, 2017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한의 PHR 플랫폼 구축(K1709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References

1. Choi SY, Gu HJ, Ryu EJ. Effects of Fatigue and Postpartum Depression on Maternal Perceived Quality of Life (MAPP-QOL) in Early Postpartum Mothers. KJWHN. 2011;17(2):118-25.
2.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Seoul:Euiseongdang. 2012:691-2, 765-70, 798.
3. Zhang ZJ. Geumgweyoryak. Seoul: Euiseongdang. 2009:377.
4. Song JE. Predictors of postpartum fatigue between early and late postpartum period in parturient women-divided by 3/4 weeks of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7;13(4):299-309.
5. Jang SW, Heo SJ, Cho HJ. An Investigation into the State of Doctors' Linkage and Oriental Medical Treatment at All Postpartum Care Center in Seoul. J Korean Obstet Gynecol. 2011;24(4):174-85.
6. Yu EK. Development of WISE HHSanhujori Guideline. Seoul: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3:297.
7. Uom ES, Lee DN, Lim EM. Clinical Investigation for Various Postpartum Symptoms.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1):365-79.
8. Park JK. Study on the Various Symptoms of Women in Early Postpartum Period - For Postpartum Women who Admitted in to Gynecology ward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2010.
9. Lee AY, Park KY, Lee EH. Changes of Depression and Fatigue Leve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Early Postpartum Women.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6(2):33-55.
10. Kim TH, Park KY, Bak JY. The Effect of Hominis Placenta Herbal Aupuncture Therapy on the Postpartum Women's Heat Feeling, Sweat and Thirst.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3):139-55.
11. Ha JI, Kim DI. The effect of Kami-Saenghwatang and Kami-Bohertang to postpartum weight retention. J Korean Obstet Gynecol. 2007;20(2):164-75.
12. Choi EM, et al. Examination of postpartum symptoms change on Postpartum admission room. J Korean Obstet Gynecol. 2002;15(3):139-50.
13. Kim Y. Changes in patient-centered medical services: focused on improvements on communic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2013;13(2):71-110.
14. Choi MS, Kim DI. Basic Research to Provide Severity Evaluation Criteria of Postpartum Edema. J Korean Obstet Gynecol. 2008;21(4):207-17.
15. Ock MS, Jo MW, Lee SI. Measuri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EQ-5D in South Korea. J Health Tech Assess. 2013;1(1):103-11.
16. Bak JY, et al. A Study about the Satisfaction of Oriental Medical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9;22(4):174-87.
17. Bae GM, Cho HS, Lee IS. The Review of Postpartum Care Beliefs and Practices According to the Cultures. J Korean Obstet Gynecol. 2009;22(1):231-42.
18. Jang SR, Park YS, Kim DC. The Clinical Analysis of 104 Sanhupung Patients that visited at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3):192-204.
19. Bak JY, EH Lee. De Quervain's Disease after Delivery Treated with SBV Herbal-acupuncture : Clinical Study on 3 Cases.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4):196-208.
20. Im JY, et al. A Case Report on Pregnancy-Related Carpal Tunnel Syndrome Worsened after Birth by Korean Medicine. J Korean Obstet Gynecol. 2015;28(4):65-76.
21. Cho HL, et al. The clinical study of Postpartum Edema. J Korean Obstet Gynecol. 2002;15(3):151-61.
22. Thanakitcharu P, Jirajan B. Early detection of subclinical edema in chronic kidney disease patients by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 J Med Assoc Thai. 2014;97(Suppl 11):S1-10.
23. Heo J. Donguibogam. Seoul:Bubin Publishers Co. 1999:1637.
24. Park KY. A Research on Progress and Evaluation Criteria of Postpartum Edema after Oriental Medical Care.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2010.
25. Lee YJ, et al. A Review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of Breastfeeding. J Korean Obstet Gynecol. 2008;21(3):16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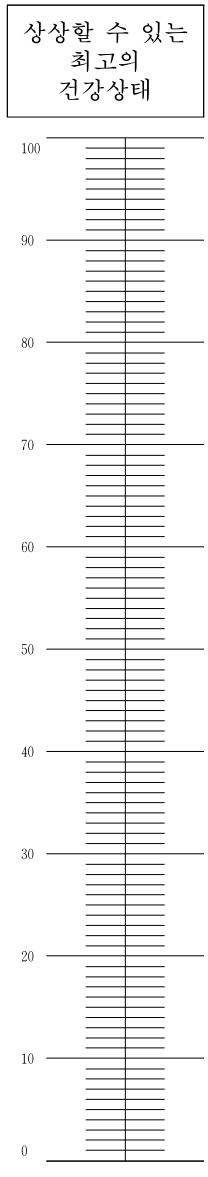
〈부록 1.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개발한 PHR 어플리케이션 내의 산후 증상 문항〉

Category	Checking Period	Questions in PHR Mobile Application
Progress Check for Postpartum Care	1st week and 2nd week after childbirth	'1. 회음부 통증이 있나요?' '2. 수술절개부위 통증이 있나요?' '3. 아랫배가 아픈 증상이 있나요?(훗배앓이)' '4. 오로의 색은 어떤가요?' '5. 모유가 잘 나오나요?' '6. 유방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나요?' '7. 요실금 증상이 있나요?' '8. 몸에 땀이나는 증상이 있나요?' '9. 어지러운 증상이 있나요?' '10. 몸에 열감이 있나요?' '11. 으슬으슬 추운 증상이 있나요?'
	From 3rd week to 6th week after childbirth	'1. 오로가 아직 나오나요?' '1-1. 오로의 색은 어떤가요?' '2. 모유수유를 하고 있나요?' '2-1. 모유가 잘 나오나요?' '3. 유방이 뭇고 열이 아는 증상이 있나요?' '4. 요실금 증상이 있나요?' '4-1. 산후 2주 이내(조리원 입원시)에 비해 상태가 어떤가요?' '5. 몸에 땀이 나는 증상이 있나요?' '6. 으슬으슬 추운 증상이 있나요?'
Health Check for Postpartum Care	All over the postpartum period	'1. 오늘 용변 시 변비나 설사가 있었나요?' '2. 밤에 쉽게 잠들 수 있었나요?' '3. 오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슬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4. 오늘 기운이 없거나 피곤한 증상이 있나요?' '5. 오늘의 체중은 몇인가요?' '6. 오늘 몸이 붓는 증상이 있나요? (아래 인체도에 부위와 범위를 표시해 주세요.)'
Daily Emotion	All over the postpartum period	'지금 기분을 입력하세요.'

Symptoms of stool	All over the postpartum period	'오늘 대변을 보셨습니까?' '1. 대변 때문에 화장실에 몇 번 가셨나요?' '2. 변의 색은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3. 변의 굳기는 어떤가요?' '4. 대변을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나요?' '5. 대변을 볼 때 힘이 많이 들고 잘 나오지 않나요?'
Symptoms of urinary system	All over the postpartum period	'1. 소변을 얼마나 자주 보셨나요?' '2. 소변의 색은 평균적으로 어떤가요?' '3.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시나요?' '4.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나요?' '5.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깬 적이 있나요?'
Symptoms of sleep	All over the postpartum period	'1.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하셨나요?' '2. 꿈을 많이 꾸셨나요?' '3. 자다가 깬 적이 있나요?'

〈부록 2. EQ-VAS 설문지〉

옆에 그려진 눈금에는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상태를 의미하고,
0은 상상할 수 있는 최저의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금자 상에 오늘 귀하의 건강 상태를 X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제, 눈금자 상에 표시하신 숫자를 아래 박스에 기입해 주십시오.

오늘의 건강 상태 = ☐